

증례Ⅱ - 1

을 동반한 상악 전치부 심미 수복 증례

이상민, 이성복, 최부병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치는 이개되는데, 환자들은 주로 심미적인 이유로 내원하여 그 개선을 요구한다. 이개된 전치를 심미적으로 개선하려고 할 경우 먼저 올바른 진단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개의 원인으로는 악골의 크기와 치아 폭경의 부조화, 현저한 과개 교합, 과도한 설압, 연하시 혀 돌출 습관, 상순 소대의 부착 위치 이상, 상악 정중부의 매복 과잉치, 치주염에 의한 지지골의 상실, 구치부 교합 붕괴 등이 있다. 이개의 개선 방법은 이개의 원인, 이개의 정도, 환자의 요구도 및 시간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대 절제 등의 외과적 처치, composite resin에 의한 수복, 교정에 의한 space closure, 적절한 치주 치료, laminate veneer crown이나 full veneer crown 등을 이용한 보철 치료, 그리고 이들 술식의 조합을 들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38세의 여성 환자로 기존에 제작되어 있던 상악 우측 중절치와 우측 견치에 걸친 3 unit의 bridge의 탈락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구강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기존의 보철물과 상악 좌측 중절치 사이의 접촉점은 소실되어 있었으며 상악 좌측 중절치의 rotation을 동반한 정중 이개로 약 2mm의 공간이 존재하는 상태였다. 상악 정중부의 매복 과잉치나 상순 소대의 부착 이상은 없었다. 환자의 문제 목록으로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위치이상으로 인한 정중 이개, 상악 좌우 중절치의 치은선의 부조화 등으로 심미적 개선이 필요하였다.

상악 전치부의 진단 wax up을 시행한 결과, 보철 수복만으로는 이러한 심미적 개선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교정적 치아가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상악 우측 중절치, 좌측 측절치 및 견치를 고정원으로 이용하여 약 3개월간의 MTM(minor tooth movement)를 시행하였다. 이후, 임시 수복물을 장착하여 전방 유도와 함께 보정 효과를 부여하였다. 약 2개월 간의 관찰 기간 후 구강 내에서 부여된 전방 유도를 최종 보철물로 재현하기 위해 customized anterior guide table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해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최종 수복물은 교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악 우측 견치부터 좌측 중절치에 걸쳐 4 unit의 금속 도재관으로 제작하였다. MTM을 동반한 보철 수복으로 상악 전치부의 정중 이개를 개선하여 심미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